

고해를 품은 관세음보살 남해를 바라보고...

(苦海)



② 해수관음도량... 남해 보리암(菩提庵)

“관세음보살”
힘들어 고단할 때, 깊은 한숨과 함께 그의 이름을 불러보지 않은 사람은 중생이 아니라, 처마 끝에 매달린 풍경(風景)처럼 늘 중생의 입에 걸려 흔들리는 말, 관세음보살. 어둠에서 깨는 날까지,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날까지 우리는 관세음보살을 불러야 할 것이다.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리 금산 남쪽 봉우리엔 관세음보살의 도량이 있다. 푸른 남쪽 바다가 한 눈에 들어오는 해수관음도량이다. 양양의 낙산사, 강화의 보문사와 함께 우리나라 3대 해수관음도량이다.

보리암은

683년(신문왕 3) 원효 스님이 이곳에 초당을 짓고 수도하면서 관세음보살을 친견했다. 그때 암자의 이름을 보광사라고 했다. 조선 태조 이성계는 이곳에서 왕조를 열기 위해 백일기도를 올렸다. 태조는 원이 이루어진다면 산을 비단으로 감싸겠다고 서원했다. 조선의 임금이 된 태조는 약속을 지켜야 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해서 산의 이름은 금(鎬)산으로 바꿨다. 태조는 조선왕조를 열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며 1660년(현종 1) 절을 왕실의 원당으로 삼았고, 절 이름을 보리암으로 바꾸었다. 1901년과 1954년에 중수했고, 1969년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전국의 3대 기도처의 하나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보광전, 간성각, 산신각, 범종각 등이 있고, 문화재로는 보리암전 삼층석탑(경남유형문화재 74)이 있다.

보리암에 가려면

대중교통은 남해터미널까지 간 다음, 보리암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타면 된다. 승용차는 보리암 제1주차장에 차를 놓고 보리암까지 운행하는 마을버스(서물)를 이용하거나 제2주차장까지 간 다음, 걸어가는 방법이 있다. 제1주차장에서 제2주차장까지는 약 3km 정도이고, 제2주차장에서 보리암까지는 약 1km이다. 제2주차장은 공간이 적어 일찍 올라가지 않으면 주차하기 어렵다. 제2주차장에서부터는 걸어야 한다. 약 15분 정도 걸어야 하는데, ‘한국에서 걷고 싶은 길’로 선정된 ‘남해 금산길’이다.

보리암에 가면

보리암이 있는 금산과 보리암은 ‘남해 12경’ 중 제1경이며, 금산 31경이다. 금산 산기슭 작은 벼랑 끝에 앉아 있는 보리암은 그 자체가 절경이다. 금산과 보리암을 바라보는 것도 절경이지만 해발 680m의 보리암에 올라 내려다보는 남해의 풍경 또한 절경 중의 절경이다. 보리암에 가면 무엇보다 평소 볼 수 없는 절경에 취할 수 있다.

도랑에 들어서면 ‘산’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보리암은 산기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 끝에 있다. 해수관음상이 바다를 굽어보고 있다. 사바를 고해(苦海)라 했던가. 깊은 한숨과 함께 불렀던 관세

음보살. 부처님을 알든 모르든 보리암에 오르면 모두 관음상 앞에 선다. 고해에서 온 우리가 고해를 품은 관세음보살 앞에 서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아도, 조용히 섰어도 합장만 해도, 아니 그의 그림자 끝에 서서 그 이름만 불러도 보리암을 찾은 이유와 대가는 충분하고 남을 것이다.

보살님께 합장 한 뒤 돌아서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한 눈에 들어온다. 효도, 애도, 밤섬, 해운산, 목심, 삼여도 등 정감다려처럼 바다 위에 떠있는 섬들과 상주모래해변, 천황산 등 육지에서 이어진 풍경들이 남해와 함께 절경을 이룬다.

해수관음상 앞에 보리암전 3층 석탑이 있다. 전설에 의하면 683년(신문왕 3)원효 스님이 절을 세웠을 때, 절을 세운 것을 기념하기 위해 가락국 수로왕비 허태후가 인도에서 가져온 석재로 만든 탑이라고 한다. 하지만 실제 돌은 우리나라 화강암으로 밝혀져 있다. 탑 위에 나침반을 놓으면 나침반이 제 방향을 잡지 못하고 놓는 곳에 따라 다른 방향을 가리킨다. 문화재 해설사가 설명과 시연을 해준다. 관세음보살 앞에서 ‘동서남북’은 부질없는 것이었다. 그저 같은 사방세계(十方世界)일 뿐이었다.

보광전과 예성당이 있고, 종각엔 경봉 스님의 글이 새겨진 범종이 있다. 경봉 스님의 글을 풀어본다. “금산의 끝 간 데 없는 경치에 / 하늘가 구름 밖 이 소리 퍼져가네 / 삼라만상이 모두 다를 것 아닐진대 / 한마을 나지 않아 여전히 미명일세”

도랑을 둘러보고 나면 도랑 위로 남해 금산길이 이어진다. 돌레길을 걷듯 천천히 금산 정상(해발 701m)을 다녀오는 것도 좋다.

해수관음도량이란

관세음보살이 상주하는 도랑을 말한다. 특별히 해수관음이라 이름 붙인 것은 해수에 비유해서 표현된 것으로 바다 중생들이 육지 못지않게 많기에 그 중생들을 항상 피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바다를 관(觀)하고 계신 관세음보살을 뜻한다. 하지만 바다 중생만을 구하기 위한 것이란 뜻은 아니다.

관세음보살은

자비심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고 서원을 세운 보살로서 관세음, 관세자재, 관세음자재 등으로 한역한다. 관세음이란 세간의 음성을 관(觀)하여 자비로써 구제한다는 뜻이다. 또한 중생에게 온갖 두려움이 없는 무외심(無畏心)을 베푼다는 뜻으로 ‘시무외자’라고도 한다. 세상을 교화함에 있어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보문시현(普門示現)이라고 하며, 32가지의 몸(삼십이육신)을 나눈다. (법화경)에서는 “무진의(無盡意) 보살이 부처님께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느냐고 묻자 부처님께 말씀하시기를, 만약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이 갖가지 고뇌를 받고 있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곧 그 음성을 듣고 모두 해탈하게 한다.”고 했다.

남해 보리암=박재완 기자



남해12경 중 제1경이며 금산 31경인 보리암에 오르면 한려해상국립공원이 한눈에 들어온다. 도랑에 들어서면 ‘산’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된다. 보리암 안과 밖 모두 절경이다.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



이국적 주택의 독일마을



바람흔적미술관

주변보기

<절>

보리암과 함께 남해 3대 사찰로 불리는 화방사와 용문사가 있다.
-화방사(055-863-5011)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망운산. 쌍계사 말사. 신라 신문왕 때 원효 스님이 창건. 보리암에서 조금 멀다. 약 35km.
-용문사(055-862-4425)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용서리 호구산. 쌍계사 말사. 신라 애장왕 때 창건. 보리암에서 약 25km.

<둘러볼 만한 곳>

-국립남해편백자연휴양림(055-867-7881)
1998년 개장한 휴양림은 숲속의 집, 잔디마당, 숲 탐방로 등을 갖추고 있다. 2007년부터 숲속수련장을 개장해 학교 단체수련이나 회사 워크숍도 가능하다.
-독일마을(055-867-7783)
1960년대 독일에 간호사나 광부로 갔던 교포들 중 황혼기를 고국에서 보내려는 이들을 위해 조성된 마을이다.
-나비생태공원(055-860-3778)
곤충과 식물 등의 자연생태를 테마로 한 자연학습장인 나비생태공원이다.
-해오름예술촌(055-867-0706)

폐교된 초등학교 교사를 개조해 만든 문화예술 공간이다. 문화예술 전시 및 공연, 작가들의 작업 공간, 전통문화체험 공간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바람흔적미술관(관람문의: 010-2912-1338)
설치미술가 최영호의 사립미술관이다. 무인으로 운영되고 있고, 입장료와 대관료도 무료다.

<먹을 곳, 묵을 곳>

▲먹을 곳
남해편백자연휴양림(055-867-7881) 삼동면 금암로 658 힐튼남해골프&스파리조트(055-860-0100) 남면 덕월리 산35-5 스포츠파크가족호텔(055-862-8811) 서면 서상리 1182-9 남해베네치아리조트(055-867-8455) 미조면 송정리 837 남송가족관광호텔(055-867-4710) 삼동면 물건리 5-1
▲묵을 곳
상주바다호텔(055-863-5226) 상주면 상주리 543-2 민북초빌(055-864-6801) 남해읍 남변리 370-1 동광정어(055861-2995) 남해읍 남변리 274 대청마루(055-867-0008) 삼동면 통천리 1025-3



희담석 희潭石 www.jawonet.com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전자파 걱정 없는 희담석 온열매트로 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희담석 에너지가 고객님의 건강을 증진시켜 드립니다.

희담석(稀潭石)의 가장 큰 특징은 탁월한 에너지 방사능이며, 제올라이트(Zeolite) 또한 '생명의 돌'이라는 별칭이 있을 만큼 에너지 및 탈취 효과가 뛰어난 원석입니다. 희담 원석 중에서도 최고의 재료를 엄선하여 만든 희담석 온열매트는 수면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드리며, 언제 어디서든 수백과로부터 고객님의 보호할 것입니다.

희담석 온열매트
● 1인용 : 58만원 ● 2인용 : 85만원

제품 사양
● 내용물 : 희담석 불(희담석 60% + 제올라이트 40%)
● 열 선 : 실리콘 테프론 무자극 열선 (전자기장으로부터 안전한 열선으로 고가의 침대에서만 사용하는 열선)

● 크기
1인용 : 100cm x 200cm
2인용 : 150cm x 200cm

정신 집중이 잘 되고 머리가 상쾌해지는 희담석 방석

희담석 방석
● 50,000원 (색상 : 황토색) (사이즈 450mm x 450mm)
※ 오래 앉아 있어도 팔이 저지 않습니다

명상과 함께 하는 - 희담석 염주목걸이

건강과 활력을 주는 희담석의 무한한 에너지 방사능을 체험해 보세요.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수행하시는 스님 및 불자
- 아예 걸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
- 원만 배운다는 느낌은 분
- 피로가 누적된 분
-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수험생
- 컴퓨터를 많이 하시는 셀러리언

● 25,000원 (황토색)

희담석 배개용 패드

속면으로 이끄는 - 희담석 배개용 패드

배개 위에 올려놓거나 베개 커버를 벗겨서 패드를 돌려 놓은 후 다시 커버를 씌우고 사용합니다. (빛면 미끄럼 방지 도트 처리로 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어나서도 깨운하지 않는 분
- 두뇌 활동이 많은 학생
- 스트레스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분 등

● 35,000원
염주목걸이 + 희담석 SET → 84,000원

월인가 56,000원

희담석 방석, 염주목걸이, 배개용 패드

www.jawonet.com에서 카드 구입시 2, 3, 5개월 무이자 할부가 됩니다.

제품문의 011-9230-2335

자원넷 JAWONET CO.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718-48 금곡빌딩 8103호 TEL. 02-3476-2335 FAX 02-3476-2505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탕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정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사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 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연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넛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 서비스]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주·야 상담 합니다